코로나19 추경 중 350억 제주로

11조7000억 규모 '코로나19 추경' 국회 통과
상품권 등 소비형 쿠폰으로 정액 지급 예정
제주도 자체로 1000억 규모 추경도 검토 중

정부가 편성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원 가운데 350억원이 제주에 투입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경영지원,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등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예산을 보면 정부 직접사업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장 등에 6조8000억원, 민간투자사업(정부 직접투자)으로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에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는 기초생활급여·아동수당·노인 일자리 지원·가정양육수당 등에 2조597억원을 투자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 수에 따라 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정액 지급한다. 이중 제주에 지원되는 규모는 35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50억원에 대한 보조결정 즉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편성, 신속하게 집행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올해 추가 교부된 국비매칭 지방비 부담분, 법정필수경비(기금전출금, 기타특계전출금, 교특전출금 등),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비를 감안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가 편성에 따른 재원은 ▷세출예산 효율화 470억원 ▷순세계 잉여금 427억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보전분) 97억원 ▷재정안정화기금 360억원 등 1354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 '포괄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가운데 상반기 중 65%를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추경 시에도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과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에 현재까지 총 228억원을 투입했다. 228억원 가운데 78억원은 방역·대응장비 구입으로, 52억원은 취약계층 예방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여졌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융자 지원으로는 87억원이 소요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코로나19 대응 3차 당정청 회의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새 도전 직면… 개학 철저 대비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서
이인영 민주 원내대표 강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교육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며 "교육부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은 우리 아이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물 샐 틈 없는 방역 안전망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개학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조할 점은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며 "학교나 학원은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의 감염은 가족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또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학교 휴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도 현장과 소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긴급 돌봄 프로그램이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다"며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긴급 돌봄만큼 학교 비정규직의 급여문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도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동홍동 선거구 <4> 무소속 김용범

"지역 숙원 누구보다 잘 알아… 해법 제시"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추진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노력
동홍천 옛물길 복원 등 공약

>> 김용범 프로필
▷생년월일=1964년 4월 26일
▷학력=서귀포고등학교, 우석대학교 졸업
▷주요경력=(전)동홍동 연합청년회장, (현)동홍동 마을회장

무소속 김용범 예비후보는 지역의 숙원사업 및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마 결심 이유는=동홍동은 20여년간 특정정당의 강세로 인해 지역을 위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특정 정당에 입후보하면 당선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에 빠져있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적 이념을 벗어나 오로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당선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우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도내 어느 읍·면·동 지역을 가더라도 복지회관은 모두 있는 반면, 유일하게 동홍동만 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홍동이 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 각 자생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각종 수익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취미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

둘째로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9월에 밀린 공사비를 전액상환함으로써 사업이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와 JDC, 녹지그룹과 협력논의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셋째, 신명나는 문화공간 및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오일장, 산지물 등 주요 문화공간을 이용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넷째, 아시아 CGI창조센터와 연계한 동홍천 옛물길 복원 사업 활성화다. 동홍천은 하천가치를 향상시키고 주민과 지역이 공감하는 하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서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주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는 전략적 수변 공간 창출로 하천사업에 대한 지역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천 활성화로 하천가치 향상과 주변 도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광장을 조성하겠다.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법은=동홍동 지역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은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 앞 녹지공간 축소, 분리 문제일 것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지상 6차로 개설사업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는 교육청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다시한번 더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상 6차로의 계획은 현재의 서귀포시 도로상황이나 산업구조 및 규모로 볼 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도심지의 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돼 6차로 중 4차로는 차도로 개설하고 나머지 공간은 자전거도로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예비후보만의 장점은=저는 20여년간 신협에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경제 흐름을 잘 알고 있다. 또 30여년간 동홍동을 위해 봉사활동 및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및 현안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 해법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한다.

정리=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코로나19 극복 축산생산자단체 성금 잇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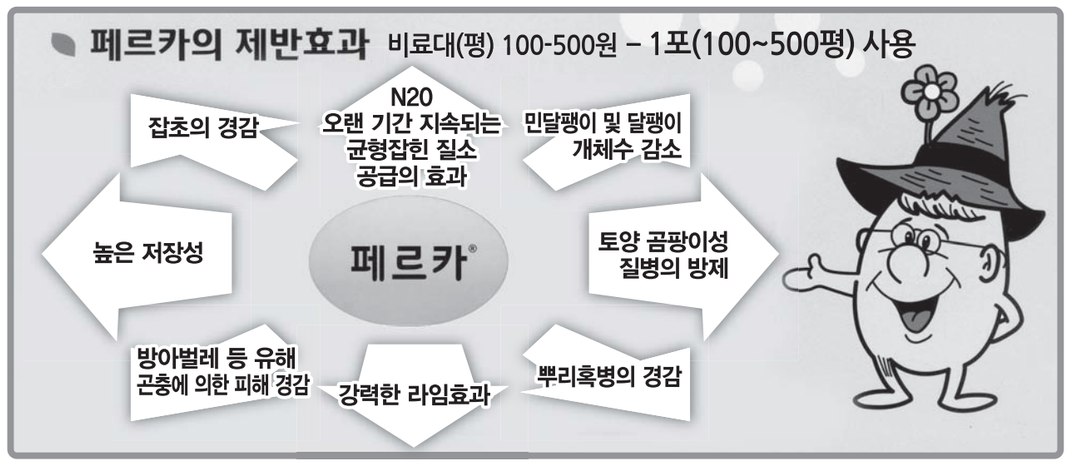
제주시는 관내 축산생산자단체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어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회장 이맹식)에서 300만원, 제주한우 미래경영회(회장 고재욱)에서도 200만원을 기탁하면서 십시일반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강승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제주·동부·서부보건소와 제주시 본청 직원에게 우유 1500개 및 치즈 100개(200만원 상당) 등을 지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취급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엽면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재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